

남북정상회담 '징검다리' 될까

27일 장관급회담 성과 주목

쌀·비료·이산가족·열차운행 등 합의 관심

남북이 15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3박4일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7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뒤에 열린 제19차 회담이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차관과 비료 제공 보류조치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조기 결렬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회담 재개 시기를 놓고 고심해 왔지만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급물살을 타던 와중인 지난 12일 북측에 장관급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제의, 북한이 하루 만에 응하면서 이뤄졌다.

12~13일 전통문을 주고 받고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장관급회담 날짜를 27일로 잡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을 놓고 이미 남북 간에 사전 정치 작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2·13 합의에 이어 남북관계 재개에도 시동을 건 만큼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당국회담을 활용한 남북관계 진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상년'에 해당하는 20차 회담인 만큼 남북이 대화 복원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기를 갖는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남북관계에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북한은 쌀과 비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은 북한이 얼마를 요구하는지다. 지난 해 보류된 쌀 50만톤과 비료 10만톤의 점에 비해 보류된 것도 받고 올해 지원될 것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산가족 대면 및 화상상봉 재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도 핵심 의제로 꼽히고 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쌀 차관 보류에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개성 자남산서관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측 대표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오른쪽)과 북측 대표 맹경일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왼쪽)이 회담을 시작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무산된 남북 열차시험운행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는 지난해 6월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열차시험운행을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방안과도 연결돼 있다.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군사 회담의 개최 문제다. 우선 장성급군사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됐지만 2000년 1차례 열린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의 징검다리라 될 지도 관심사다. 6자회담에서 비록 초기조치지만 핵폐기 실천조치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열린우리당의 자진폐업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전당대회를 열고 신당 추진을 결의했다.

100년 가는 정당을 장담하며 3년 3개월 전 창당대회를 가졌던 잠실체조경기장에서 자진폐업과 신장개업을 동시에 선언한 것이다.

100년 정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진술한 반성은 없었다. 35초만에 당의 장을 선출하는 대목에선 뻔뻔함마저 느껴졌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7대 총선이 치러지지 한 달이 지난 2004년 5월 29일 저녁, 청와대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탄핵 광풍'에 휩쓸린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감격에 겨워 당선자들과 일일이 포옹까지 했고 술잔을 부딪치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그렇게 그날 밤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역대 여당 최대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기대와 달리 현실 정치와 이상 사이에서 갈갈질갈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으로는 민생을 챙기고 밖으로는 미래에 대비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개혁을 선점했다는 오만과 준비되지 못한 무능이 겹치면서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충돌과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고 소통하지 못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재보선 42전 42패, 지방선거 참패가 이어졌다. 3년 동안 10명의 당 의장이 나섰으나 백악이 무효였다.

열린우리당 창당의 근간이었던 기간당원제가 폐지됐고 일부 창당 주역들은 청와대에 눈을 흘기며 잇따라 새로운 동지를 찾아 나섰다.

사실상 당 해체 위기에 빠진 열린우리당은 전대 미문의 전당대회를 열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최고의 잔치판이 될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당 해체를 결의한 것이다.

이날 전당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 모의원은 "잔치는 끝났다"며 "아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오래전에 발표된 최영미 시인의 시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그들의 잔치로 끝난 열린우리당의 운명을 반추하게 한다.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지막 샘을 마치고 제각각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아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잔치는 끝나고 그들은 또 다시 '100년 정당의 꿈'을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뒤통수를 기억할 것이다.

/tuim@kwangju.co.kr

'북핵 2·13 합의' 후속조치 착수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에너지 실무그룹 의장 맡을 듯

정부는 15일 북한 핵폐기 초기 조치 및 상응조치를 담은 베이징(北京) '2·13 합의' 이행에 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2·13합의'에 따라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를 30일 안에 개시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외교통상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당국자 등으로 범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 첫 실무그룹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북핵 및 북미 라인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한 '에너지·경제지원 실무그룹'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중유 등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확보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60일 내 이행하기로 한 북한의 핵폐기 초기 조치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6개국 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은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무회의를 가급적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서울이나 제주도 등 개최지 선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등 우리가 참여하는 나머지 실무그룹 2개의 출범 준비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한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이날 CBS뉴스레이다에 출연, 영변 핵시설 폐쇄와 그에 따른 중유 5만톤 제공 시점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인원들이 (북한의 핵 시설) 현장에 도착하는 날이 폐쇄일이 될 것이며 그날 5만톤의 중유가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장관급회담, 대선용 정상회담 사전정지 의혹"

한나라당은 15일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과 관련, "정부가 북한에 무언가를 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장관급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무엇을 갑자기 서둘러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이 비쳐지고 있다"며 "정부가 6자회담 합의를 빌미로 지나치게 서둘러

지원재개를 허가하거나 정략적 이벤트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정부가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거나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재정 통일장관과 통화에서 당 입장을 밝혔다"며 "남북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지에 국공포로,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가 포함돼야 하며 국민의 관심사인 북한

핵 폐기와 핵 불능 사태가 오도록 하는 장관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 합의사항의 진전과정을 지켜보지도 않고 오직 정상회담만을 위한 진격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이 시작된 게 아닌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북, 핵포기 대가로 3억달러 챙겨"

美 뉴욕포스트지 보도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등의 대가로 제공받은 중유 100만톤의 가치는 3억 달러 안팎에 이른다고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핵 포기 대가로 김정일에 3억 달러 보물'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의 대가로 오는 4월 중순까지 최초 선적분으로 제공받게 될 중유 5만톤은 시가로 1천만~1천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은 이어 협상 조건을 잘 이행할 경우 추가로 95만톤에 달하는 중유를 제공받으며 이는 2억5천만~3억 달러에 달해 따라서 중유 100만톤의 총 가치는 2억6천만~3억1천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 /워싱턴=연합뉴스

세균감염방지를 위한 환경대책에 만족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전염 세균을 99.99% 제거하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BACTERICIDE Clean Hospitala 약속합니다

냄새 완전 소취! 세균 완전 제거! 방사 완전 제거!

신속 100% 세균 제거, 10분 이내 완료, 1인당 100원 이하, 1인당 100원 이하, 1인당 100원 이하

신뢰 100% 세균 제거, 10분 이내 완료, 1인당 100원 이하, 1인당 100원 이하, 1인당 100원 이하

경제 100% 세균 제거, 10분 이내 완료, 1인당 100원 이하, 1인당 100원 이하, 1인당 100원 이하

(주)다올바이오텍 전남 북총판 | 10621 531-2811 | 011-9616-5258